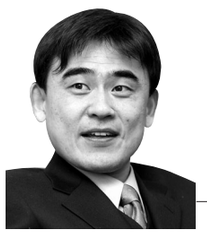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청렴결백의 길, 불교계가 앞장서길



김형남 변호사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상당수의 예상을 깨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김영란법의 전체 5가지 쟁점 중 금품수수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점과 사립학교 교원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필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김영란법의 필요성이라는 현실 앞에 이 법의 존립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 결정 이후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제한범위를 완화시켜야한다는 얘기가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영란 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교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김영란법이 정한 이상으로 엄격하게 금품수수 등을 제한받고 있다.

또 이미 많은 사기업들도 직무관련 식사대접 등 향응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임직원들의 관계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련 향응접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삼성그룹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지 않는가?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는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향응대접을 규제하고 있다. 또 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동료기자를 비판하고 대자보가 붙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이 승차한 택시의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날 때면 항상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곤 한다.

필자가 제정된 김영란법을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교계에서 특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차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교리를 갖고 있는 불교계야 말로 이 법을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때가 아닌 가 생각된다.

다만, 현 시행령 상의 직무관련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금품을 제한하는 것이 언론사, 특히 특수한 분야를 취급하는 언론의 경우에 큰 애로사항이 될 것 이다.

불교계 언론사의 경우 독자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취재원이 전국에 존재하고, 특히 심신 산골까지 찾아가야 할 일이 다반사이다. 거기까지 온 정성을 생각해서 여비라도 넉넉히 보태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벤츠 여검사 등을 보듯이 공직자 등의 얇은 유리판 같은 윤리의식에 테이프 하나 붙인 정도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상정을 조금은 참기를 바란다. 정 고맙다면 충실히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생각해 좀 더 돈을 모아 광고를 실어 주자.

이외 불교계 공식행사에 모든 언론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교통비,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가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이 사회의 모든 성역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라든가, 공무원 등의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앞으로도 거론될 것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많은 판례이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회가 한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불교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앞장서서 걷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발언대

올 여름도 초복 · 중복 · 말복을 거치며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8월 18일 열린 '2차 생명포럼 세미나'서 인간 의식의 성숙에 따라 개 식용도 점차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생명체가 느끼는 고통 공감 중요"



우희종 서울대 교수

최근 개식용의 식습관이 점차 혐오시 되며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종 접하는 개식용 찬성 논거는 우리 민족의 전통 식습관이다. 또는 개고기가 몸에 좋아서 환자들의 회복이나 원기 보충에 좋다는 이유 정도다. 경우에 따라선 '농장동물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왜 개식용만 반대하느냐'는 반응도 접하게 된다. 인류나 한반도 역사를 볼 때 기근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량 부족을 겪을 때가 많았고, 근대 산업화 이전엔 결코 식량이 풍부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근 상황서 생존을 위한 개식용이라면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요로워져 만성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고기 식용을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종교계나 정치권, 동물보건복지를 표방하는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

모피를 그토록 좋아하는 서구문화에서도 점차 모피를 입지 않는다. 또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이자 헤밍웨이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투우도 이제는 '동물학대'란 시각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인류에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전통'이라며 고집하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게 보일 것인가. 인간 의식의 성숙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연동되어 변하는 것이고, 이제 개식용을 비롯한 육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질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이미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서구식 과도한 영양상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시대나 환경이 바뀔 때 우리의 인식과 전통도 그에 걸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식용이나 육식 논란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할 것은 '생명체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감(Compassion)의 소중함'이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형태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존이 다른 생명체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서 발생하는 고통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인간 존중 의식의 확장에 따라 노예제도가 사라졌듯 생명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확장은, 자연스레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과의 공감능력이 가장 잘 이뤄지는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많은 부분 인간이 지닌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에 의한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능력이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먹거리로 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서 공감과 소통을 함께 할 대상 중의 하나를 갖지 못한단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비록 개보다는 인간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농장동물'에 있어서도 생명의 고통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언젠가는 농장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는 육식반대 움직임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다. 생명이 지닌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에 따른 점차적 육식 극복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구 생태계의 일원인 인류는 그 공감능력을 지구 생태계로 확장할 때가 되었다. 동물을 단지 인간의 먹거리로만 생각하던 문화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동물로 이뤄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社說

한국불교 신행 혁신 기대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임포교원장 취임 이후 5개월만에 새 포교비전을 공표했다. 바로 '신행혁신'과 '새 불자상 정립'이 그 것이다. 세간에 확대되고 있는 불자의식 고취 캠페인과 맥을 같이 한다.

포교원은 먼저 신행지침을 일선사찰에 전달하고 전법중심도량을 중심으로 신행혁신추진도량을 200곳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불자들의 신행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만은 뚜렷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불교, 특히 포교는 위기상황이다. 출가자 · 신도의 급감과 고령화, 군소 사찰 운영의 어려움 등 도처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위기 대책으로 불교의 최대 강점인 '수행의 종교'로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종책은 포교지도 구축이다. 포교지도는 현재 부서별로 정리해놓은 지역사찰 · 불교대학 · 법회 · 복지시설 · 명상센터 등 현황을 취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 대불련과 공동으로 '대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불자층의 신행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각종 공모전과 대학 무료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신입생 확보도 나선다. 20~30대 신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 데에 대한 대책이다.

조계종은 신도멤버십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27만명에 불과했고, 교무금 납부도 20%대였다. 이는 그동안의 종책이 이벤트성에 머물렀음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포교원의 새 비전은 장기적인 종책집행이 절실하다. 포교와 전법만큼 불교에 중요한 것은 없다. 조계종 포교원의 새 비전에 맞춰 한국불교 신행문화, 그리고 포교전선에 새 바람이 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사찰 · 학계 공조, 문화재 환수 지름길

1988년 도난됐던 고성 옥천사 나한상 2점이 다시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것으로 총 7점의 도난 나한상 중 4점이 환수돼 이제 3점만이 남았다.

옥천사 나한상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사찰과 학계의 공조 노력이 있었다. 2014년 문화재를 은닉했던 사립박물관장이 체포됨으로서 나한상 2점이 환수됐지만, 5점의 행방이 묘연했던 상황에 결정적 증거가 지난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당시 학술대회에서 도난 중인 5점의 진본 사진을 학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사진은 본지 보도를 통해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진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것이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한상 찾기는 좀 더 용이해졌다. 사진 공개된지 25일만에 옥천사 측은 한 사립박물관 기획전에 도난 나한상 2점이 대여 · 전시됨을 알았고, 소장자는 무상 기증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것은 문화재 소장 사찰과 학계의 공조로 이뤄낸 문화재 환수의 선행 모델이기 때문이다. 옥천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본사가 아닌 단일 사찰에 연구소에서 소장 문화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협약을 맺는 것은 드문 사례다. 넉넉하지 않는 사찰 살림에서 쪼개고 쪼개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대회를 연 것은 자명하다. 이런 원력과 노력이 성보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관심과 노력이 도난당한 성보를 불교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